

땅의 정직함을 믿는 청년 농부

이재광 대표

Lee Jae Kwang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일산쌀농업회사법인은 농사에 사용되는 수많은 기구와 기계들을 보관하고 도정과 쌀 연구가 진행되는 곳이다.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이는 1988년생의 청년 농부 이재광 대표다. 그는 땅의 정직함과 흘린 땀의 소중함을 믿고 쌀미(米), 친할 친(親), '미친(米親) 농부'가 되기 위해 달리고 있다.

글 서충식 사진 주효상



66 쌀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알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고 싶어요

99

예비 청년 농부들의 길라잡이

3만 평 규모의 농사를 통해 고품격 쌀을 재배하고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있는 일산쌀농업회사법인 이재광 대표는 과거에는 농사일을 싫어하는 청년이었다. 하지만 부모님의 농사를 도우며 알게 된 젊은이가 부족한 농촌의 현실을 기회로 받아들이고 곧바로 가업을 이어받아 2009년부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들녘에 희망을 심어오고 있다.

현재는 이재광 대표 본인과 친동생인 이재익 팀장을 포함한 총 4명의 직원이 일산쌀농업회사법인을 이끌어가고 있다. 모두가 농사라는 일을 공통으로 하며 생산, 판매·유통 등으로 파트를 나눠 가와지 쌀, 일산 쌀, 현미 칩 등을 생산해 고양시 일산의 쌀을 알리며 청년 농부라는 자부심을 키워가고 있다. 특히 농업에 관심이 있고 뜻이 있는 예비 청년 농부들의 길라잡이가 되는 '청년 농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꿈이 있다.

"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특히 농업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곳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렵죠. 이런 친구들



2



3

- 1 이재광 대표
- 2 비닐하우스 못자리
- 3 모심기
- 4 일산쌀농업회사법인 단체사진

을 위해 일산쌀농업회사법인이 함께하며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농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지금은 고양시의 대표 산업인 화훼 농가의 젊은이들과 협업해 유통을 돕고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노력과 변화 그리고 특별한 선물

이재광 대표는 벼를 생산해 정부나 농협에 구매하는 기존 구조에서 고수익을 내기 위해 직접 도정을 하고 판매·유통하는 구조로 변경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또한 쌀 품종을 기존에 재배하던 고시카리에서 경기도농업기술원과 고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함께 개발한 가와지쌀로 변경해 지역 상징성과 마케팅 이점을 모두 갖게 돼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를 냈다.

고품격 쌀 생산을 위해 과감한 변화와 많은 노력으로 꾀꿉하게 본인의 길을 걸어갔고 꽃을 피웠다. 지난해에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참드림' 품종을 직접 재배해 2018년 경기도 쌀산업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에서 수상하는 '10월의 미(米)스 코리아'에 선정되는가 하면 그해 말에는 '차세대 농어업인 대통령상'을 받으며 그동안의 노력을 보상받았다.

"젊은 농업인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차세대 농어업인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제가 10년 넘게 해왔던 일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받는 것 같아서 기뻐했습니다. 대통령상이면 일반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잖아요. 그런데 하필 시상식 당일인 12월 12일이 부모님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제대로 챙겨드리지 못해서 죄송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특별한 결혼기념일 선물을 드린 것 같다고 생각해요"

땅의 정직함을 믿고 흘린 땀의 결실을 찾아가고 있는 이재광 대표. 그는 "농업으로의 뜻이 확고해서가 아니라도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이 되는 농업을 체험해본다면 본인 미래의 좋은 양분이 될 것이다"라며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본인과 같은 사례를 통해 청년들이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초롱초롱한 눈이 앞으로 어떤 농업인의 모습으로 성장할지 기대케 한다. 🌾



21

4